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역 사거리 일대에서 열린 제8차 검찰 개혁 촛불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사수 vs 조국파면’ 국감 격돌 예고

민주, 야권발 의혹 차단하며 ‘민생점검·정책질의’ 한국 “의혹 파헤쳐 반조국 여론 확산” 고삐 죄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중반전으로 접어든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며 전방위적 격돌을 예고하고 있다. 여야는 서초동 집회와 광화문 집회를 통해 민심의 흐름을 확인했다며 ‘조국 대치전선’은 국감 전반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초동 집회에서 검찰 개혁 및 조 장관 수호 민심을 확인했다고, 자유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에서 조 장관

퇴진 민심이 표출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민주당은 태풍피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등 민생현안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 정부정책을 점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집권여당의 면모를 부각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에 대한 보수야당의 파상공세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6일 “한국당이 ‘조국 국감’을 천명한 상태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

가 있다”며 “한국당이 국회를 비우고 거리로 나간 사이 의원회관을 지키면서 준비한 정책질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조국 파면’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기조다.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조국 관련 증인채택을 거부하는 사상 초유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인다”며 “야당으로서는 악전고투의 상황이지만 최대한 조국 의혹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거대 양당의 장외 세 대결에서 한 발짝 물러나 원내정당으로서 국감에 매진할 방침이다. 이번 주 최대 국감 격전지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교육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을 실시한다. 서울중앙지검은 조 장관 일가의 수사를 진행하는 곳이다. 따라서 조 장관 압수수색, 자녀 입시특례를 비롯해 피의 사실 공표 논란 등 여야간 난타전이 예상된다. 교육위는 오는 10일 서울대 국감을 한다. 조 장관 자녀의 서울대 공익인권센터 터 인턴 활동, 조 장관 딸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및 휴학제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8일), 국세청(10일), 관세청(11일) 등에 대한 감사를,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7일), 금융감독원(8일) 등에 대한 감사를 각각 진행한다. /서울=강병은 기자

‘검찰개혁’ 촉구 대규모 촛불문화제 “300만명 참가”...성모병원 앞 보수 ‘태극기집회’

검찰개혁을 촉구하고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열렸다. 사법적폐청산법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서초역 사거리에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서초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는 반포대로 교대입구 삼거리~서초경찰서 1.1km 구간 8개 차선,

동서로는 서초대로 대법원 정문~교대역 인근 유원아파트 근처 1.2km 구간 10개 차선을 차지하고 ‘검찰개혁, 조국 수호’, ‘정치검찰 적폐검찰 아웃’ 등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는 “지난주에는 200만명, 오늘은 300만명이 모였다”며 “대한민국 역사 이래 아무도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을 문제

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과 촛불의 힘으로 반드시 이뤄내자”고 말했다. 작가 이외우씨도 이날 집회 무대에 올라 “대한민국 건국이념은 홍익인간인데 정치검찰과 부패 정치가들은 인간을 널리 해롭게 한다”며 “이들을 적절히 위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는 보수단체가 집회 때 주로 사용했던 태극기도 등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대형 태극기와 태극기 카드를 흔들며 파도타기를 했다. 앞서 우리공화당과 보수성향 단체도 인근에서 조 장관 사퇴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낮 12시 30분부터 서울 성모병원과 서울지방조달청 사이 반포대로에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조국 구속 태극기 집회’를 열었다. 자유연대도 이날 오후 5시부터 반포대로 서초경찰서 앞에서 북쪽 방향으로 대형 스크린을 설치하고 ‘조국 구속·문재인 퇴진요구 결사항쟁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한편, 경찰은 검찰개혁 촉구집회와 보수집회가 인접한 지점에서 열리자 충돌을 막기 위해 88개 중대 5,00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연합뉴스

성매매 실연에 고발장 제출... ‘이색국감’ 백태 “국감 스타로 튀어야 산다” 다양한 소품도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어김없이 세간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의원들의 특색 있는 아이디어가 속출했다. 딱딱한 국감에서 벗어나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소품이나 퍼포먼스 등을 활용하는 게 대표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 ‘국감 스타’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실제 “야, XX, 박경미. 대답 바로 바로 안 하나? 요즘 안 괴롭혔더니 미친 X이 나대네. 처맛으려고 환장을 했네.” 지난 2일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이름이 들어간 욕설이 이어지자 국감장이 잠시 술렁였다.

박 의원은 ‘왕따 체형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알려진 ‘사이버폭력백신’이라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직접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겪는 상황을 연출하며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주목조목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보좌진이 성매매 알선 사이트 가입을 통해 성매매 업소 관계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3일 광화문 집회에서 주최 측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주장을 강렬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김 의원은 “3일 집회 내란 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북미 실무협상 결렬...문 대통령 ‘촉진역’ 행보 기로

“대화 시작” 평가 속 김정은 부산 방문 여부 ‘촉각’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간 비핵화 실무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6일 청와대는 구체적인 상황 파악과 대책 마련에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관련기사 8면 이번 협상에서 북미가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다시 ‘노딜’에 그치면서, 문 대통령의 ‘촉진역’ 행보가 다시 기로에 처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이번 실무협상이 이뤄진 것 자체에 ‘북미대화 재개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대화 이후에도 동력을 살려가는 데 힘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실무협상에서 양측이견이 좁혀지지 못한 이유를 정밀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화동력 유지를 위한 한국 정부

의 역할에 대해 숙고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실무협상 결렬로 비핵화 대화가 완전히 멈춰 서는 것이 아니며, 비핵화 방법론에서 인식 차를 확인했을 뿐 결국 다시 의견을 좁히는 과정을 거치리라는 것이 청와대의 판단인 셈이다. 청와대는 이처럼 공개적으로는 대화동력 견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이번 결렬로 인해 다시 협상이 교착상태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번져가고 있다. 비핵화 협상이 다시 주춤하게 되면서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포함, 남북관계 발전 노력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장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석할 가능성도 작아진 것 아니냐는



이낙연 총리 ‘니눔봉사 실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5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에 방문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부스에서 배우 윤세아 씨와 함께 나눔봉사를 하고 있다.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서울 국가정보원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난 24일 국회 정보위원회 의에서 ‘김 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협상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부산에 오지 않겠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장성토지 (급매)

광주에서 20분 (장성군청~장성댐사이)

⇒ 국도도로 12m접 (앞면30m)

- ① 매매가 시세 10억 (1080평) ↳ 7억 5천
- ② 평수(230평, 매매가 1억6천) ⇒ 전원주택, 물류창고, 사무실 투자적합

■ 추천 물건

- ① 장성은 용강리 국도변접합(760평) → 매매가9천5백만
- ② 장성남면월정리(1093평) → 매매가16억5천만
- ③ 장성필암리(담)925평 → 매매가2억8천만
- ④ 담양읍메타세쿼이아도로접(1470평) → 매매가8억2천만
- ⑤ 광주서구서창(197평)시청에서20분거리 → 매매가5억9천만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전문]

- ① 특수반 모집(매주 개강)
 - 이제 특수경매만이 큰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유치권, 법정지상권, 지분, 엔피엘)
 - ※10억짜리 부동산 → 3억에 가능
- ② 매주 토요일
 - 기초무료교육 실시
- ③ 전문반 모집
 - 책상, 컴퓨터 제공
 - 주1회 물건분석 스타디
- ④ 경매투자 연30% 수익가능
 - 근저당 설정 시 연 15% 가능

대신경매 010-4667-9820

경매물건 (추천)

부동산 경매

〈아파트, 주택〉	아파트 - 광산구 삼각동 - 건물 59.89㎡ - 감평가 1억3천만 - 최저가 9천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64.0㎡ - 감평가 6억 - 최저가 2억6천만	아파트 - 광산구 운남동 - 건물 49.69㎡ - 감평가 1억1천만 - 최저가 7천8백만 근린상가 - 서구 치평동 구분건물 - 건물 341.05㎡ - 감평가 8억2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주택 - 동구 학동 - 토지 186㎡ - 감평가 1억7천만 - 최저가 1억7천만 다가구(원룸) - 서구 금호동 - 건물 373.58㎡ - 감평가 6억4천만 - 최저가 4억4천만	주택 - 남구 백운동 - 건물 243.77㎡ - 감평가 3억1백만 - 최저가 2억1천만 임야 - 광주 광산구 동산동 - 면적 3502㎡ - 감평가 1억5천만 - 최저가 1억만
〈특수 물건〉	잡종지 - 남구 송하동 - 지분5481㎡ - 감평가 18억1천만 - 최저가 12억6천만	토지 - 전남 장성 삼서면 - 농지 2079㎡ - 감평가 7천만 - 최저가 7천만	숙박시설 - 전남 광양 학교면 - 건물 2025㎡ - 감평가 25억3천만 - 최저가 9억월	숙박시설 - 전남 여수시 용봉면 - 건물 2308.03㎡ - 감평가 24억1천만 - 최저가 5억7천만
〈매매 및 임대〉	근린시설 - 총복 총주시 수안보면 - 건물 1826㎡ - 감평가 12억9천만 - 최저가 5억2천만	다가구(원룸) - 경기 화성시 병점 - 건물 480.22㎡ - 감평가 10억2천만 - 최저가 4억9천만	근린주택 - 충남 예산군 봉산면 - 토지 10418㎡ - 감평가 11억5천만 - 최저가 3억9천만	다세대(빌라) - 충남 태안 태안읍 - 건물 970.26㎡ - 감평가 7억6천 - 최저가 6억3천만

◆ 기본권리 분석된 물건만 선별하여 올리고 있습니다 ◆ 그밖의 물건(부동산)도 많이 있습니다.

010-6670-9800